

오차대에서의 1년

계명대학교

박민주

4월은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없을 만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5월이 되자 예상보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고, 스스로도 그 변화가 낯설었다. 그러다 6월이 되어서야 이 생활이 조금씩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7월에는 마침내 '이제는 정말 이곳에 정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은 아마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1년 동안 머무를 계획이고 회화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일본의 서클 활동에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언어는 교실 밖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다도부에 이끌어 준 한국인 친구, 외국인인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준 다도부와 성극부,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대에 서서 노래할 기회를 준 경음부까지, 이 모든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빠졌지만, 니시자카 선생님의 '제2언어 교수법 연습 I' 수업만큼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이 수업을 통해 일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수업은 단순히 재미있었고, 어느새 즐기며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국제과 직원분들과 기숙사 관리인분들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멋대로 행동해 곤란을 드리기도 했음에도 늘 배려해 주신 담당 교수님께는 특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항상 상냥하게 대해 주신 카토 선생님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수업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 준 친구들까지, 모두를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 1년의 유학 생활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